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

김윤경^{1*}, 양복순²

¹기독교간호대학교 조교수, ²예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Women's dueitbaragi for Vietnamese Daughter-in-law

Yun-Kyoung Kim^{1*}, Bok-Sun Yang²

¹Assistant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su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며느리와 동거하는 농촌지역 여성노인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면대면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8개의 본질적 주제와 2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은 베트남며느리를 맞아 아들이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했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 기초하여 베트남며느리, 아들 및 손자 관점에서의 경험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농촌지역, 여성노인,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ir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Vietnamese daughter-in-law and rural elderly women's lives. Van Manen's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8 people who live with a Vietnamese Daughter-in-law.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8 essential themes and 28 them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analysis. The rural elderly women who had Vietnamese Daughter-in-law had to continuously provide support for their son's family and were subject to a high level of stres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culture and Vietnamese culture. The findings can be used to develop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community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all family members. For further study, exploratory study on the grandson who has a Vietnamese mother or the son who has a Vietnamese wife is recommended.

Key Words : Rural area, Elderly Women, Vietnamese Daughter-in-law, Ditbaraji, Qualitative research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Ew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Yun-Kyoung Kim(kyk0917@ccn.ac.kr)

Received September 11,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October 7,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른 한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비율이 2010년에 비해 8.7% 증가된 58.7%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1]. 그러나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비불균형의 심화, 한국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만혼과 혼자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는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서도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2]. 실제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은 혼기를 놓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위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지만[3], 아들의 결혼은 자신이 죽기 전 꼭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자 부담일 뿐만 아니라 노인 삶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4]. 농촌여성노인들은 가사와 농사일을 아들부부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여성노인인 경우 아들의 성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시장에 나서고 있다[5]. 또한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경우 아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사와 농사일 및 손자녀 돌봄의 일차적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6-8].

국내 외국인며느리의 국적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7년 현재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1],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베트남이 3세대 이상의 대가족 문화, 부모부양의 효 사상, 제사의식[2,10]등 우리나라 농촌문화와 유사하고, 외모와 피부색 등이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어 후손들이 외모적인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 여러 측면의 유사점 때문에 베트남 여성을 며느리로 선호하고 있다[3,9].

그러나 단일민족과 가부장제의 문화를 배경으로 평생을 살아온 농촌여성노인들에게 외국인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서로 다른 언어, 문화 및 세대 차이로 인해 한국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이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11]. 또한 아들내이가 결혼에 이르기 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3.9일로 다른 국적의 여성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짧아[12],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상 여성노인들은 베트남며느리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13] 며느리의 한국 내 적응 및 가족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할 경우 심리적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외국인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 남아선호사상, 서로 다른 자녀양육방법[14,15], 문화적응 및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11], 정신건강수준[6,8], 생활경험에서의 적응관련[5,16], 손자녀 양육[17], 삶의 질[18], 고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효과[19]등 양적연구로는 적응관련, 고부갈등이나 스트레스, 손자녀 양육과 삶의 질, 우울 및 정신건강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연구는 적응과정 및 생활경험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 현재 외국인며느리의 국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도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며느리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뒷바라지는 베트남며느리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여 한 가정 내 안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까지 뒤에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이 베트남며느리를 끝없이 뒷바라지 하는 체험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며느리를 뒷바라지 하는 농촌여성노인의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van Manen[2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2 현상에 대한 지향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인이 있는 보건진료소에 찾아 갔을 때 농촌 여성노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머느리를 데리고 와 진료 때마다 진땀 흘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머느리가 아플 때마다 손을 잡고 보건진료소를 찾아와 머느리의 건강을 챙기고, 혹여 베트남머느리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이나 가지 않을까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며 참고 산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머느리와 함께 오는 경우가 아니면 집안일과 손자녀 양육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횟수도 적었고,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자조모임 참여율도 낮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 연구자는 베트남머느리를 둔 농촌여성노인에 대해 '베트남머느리를 맞아 뒷바라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

2.3 실존적 탐구 단계

2.3.1 개인적 경험을 출발점으로 사용

2009년도부터 본 연구자는 '다문화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 사회구조 및 경제 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지이나 지인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할 때면 연로해 보이는 여성노인이 손녀처럼 보이는 베트남머느리를 데리고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머느리에게 아픈 기색이 보이자 머느리가 걱정되어 보건진료소에 찾아왔고, 어디가 아픈지 손짓발짓 다 하면서 진땀 흘리며 물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느리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그런 머느리를 대신해 보건진료소장에게 혼자 머느리 증상을 설명하면서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었다. 이렇게 베트남머느리와 동거하는 농촌여성노인들을 보면서 '배움이 많지 않았을 여성노인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베트남머느리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3.2 문학과 예술작품으로 부터의 경험적 묘사

문학이나 예술작품 등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느

낌이나 감정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통찰을 증가시켜 주는 경험의 원천이다[20]. 여성노인의 베트남머느리 뒷바라지와 관련된 작품으로 수기부문은 2017 다문화가정 생활 수기 1편을 비롯하여, TV EBS 「다문화 고부열전」 3편, TV EBS 「다문화 사랑」 2편 총 5편의 다큐멘터리와 월간지 「새가정」 1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수기 부문 -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 2017 다문화가정 생활 수기 중 '정 많은 맘머느리 딘디'

저자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 몸이 병약한 큰 아들이 혼기를 넘기고, 혼자 외롭게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베트남 결혼정보회사에 아들을 가입시키고, 아들의 성혼을 위해 베트남으로 머느리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동생들은 다 짝을 만나서 장가를 갔는데 우리 큰 아들은 마흔이 다 되도록 혼자 외로운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후 혼자 살다보니 절제가 안되어 술도 많이 마시고 살도 엄청 찌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우리 큰아들이 계속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결혼까지 하는 4박 5일의 베트남여행을 떠났습니다. (중략) 그런데 그중에서 눈도 크고 선한 인상에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외모의 아가씨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떠들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eople who came to Korea in hope of happiness—Warm-hearted 1st. : memoirs of 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e 2017. (2017). Daegu :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Maeil Newspaper.

▶ 다큐멘터리 부문 - 시집살이하는 시어머니와 베트남댁 히엡(2014년 1월 31일 방송)

충북 보은군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68)는 남편, 아들(44), 베트남머느리(25), 4명의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노인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베트남머느리를 맞아 농사일뿐만 아니라 머느리까지 챙기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시어머니인 여성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식사준비로 바쁘다. 며느리가 있는 방문을 열며)에미야! 얼른 밥먹어.

며느리: (통명스럽게 대답한다)조금 있다 먹을게요.

시어머니: 아기 놓고 얼릉와(문을 닫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각각 인터뷰 장면)

며느리: 저는 안 먹어요, 조금 있다 혼자 먹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밥 차려드려야 하는 거)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안 먹으면 안 해요. 음식도 그래요. 제가 안 먹으니 까 안 해요.

시어머니: 내가 짓거리론(뭐라고 하면) 아들한테다가 뭐라고 하니까 그제 두려워가지고....., 나는 아들 속 썩이고, 그랄까 봐 더 얘기를 안했지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끝낸 후 나오지 않는 며느리 방문을 쳐다본다)

시어머니: 안 먹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그다 이렇게 놔야제. 먹으면은....., 여기다 놓으론 찾아서 먹으니까. 찾아서 먹으니까.....(웃음). 온 집안이 편할라고 만 한 게지. 그렇게 하면은 자꾸 더 나하고 사이가 더 멀어지고, 그러잖아도 걸핏하면 빠지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더 빠질까봐...

2.4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

본 연구는 Morse와 Field[21]가 연구 참여자 선정 시 기준으로 제시한 적절성 및 충분성을 고려하였다.

연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주제에 맞게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베트남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노인 중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며느리를 뒷바라지한 경험이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 배우자 없이 살면서 노총각 아들의 배우자로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를 맞이하여 동거하고 있고, 손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적절한 참여자에게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22], J군 보건진료소장 모임과 다문화협회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베트남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노인 중 목적적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

월부터 11월까지 면대면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90분에서 2시간 정도, 연구 참여자 별로 2~6회까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하였다. 면담 장소는 집과 마을회관 및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진료소장의 협조 아래 보건진료소의 조용한 방 등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원하는 곳에서 이뤄졌다. 면담하는 내내 참여자의 어투나 어조, 표정이나 행동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면담 직후에는 현장노트에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특징,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중요한 면담 내용, 그리고 추후 추가로 질문 할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직접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필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고령으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나 사투리인 경우 그대로 필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야 했고, 모르는 뜻이 있을 때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단어나 문장들은 다음 면담 시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2.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25-23).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면담 전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한 예상되는 위험, 손실에 대한 보상, 연구 참여 철회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참여자의 나이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이해할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문서화된 동의과정을 거쳤다. 동의서의 내용은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과 면담참여와 중단이 경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의 신원은 부호화 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녹음된 음성파일 및 필사본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자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고, 파일과 기록은 연구자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종료 시 폐기할 것과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이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은 없는지 수시로 참여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을 하는 도중 참여자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 면담을 잠시 중단하고

충분히 설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참여자들이 비밀보장에 관해 물어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편안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2.7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는 질 확보를 위해 Sandelowski[23]가 재구성한 4가지 측면인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연구방법의 정확한 숙지, 절차에 따른 연구 진행과 도출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연구결과 및 논리적 모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기술할 수 있도록 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참여자가 기술한 경험 및 주제 기술 내용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사학위 논문을 질적연구로 수행한 간호학 전공 교수 2명과 임상실무자 1명에게 연구결과를 검토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자의 기술내용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기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를 기술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은 연구가 반복해서 진행될 때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및 관찰, 필사 등의 모든 자료 수집은 직접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자료 분석 및 글쓰기는 van Manen[2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의존가능성을 높였으며,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수기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다른 작품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일치성(Conformability)은 연구 결과에 대한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며,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먼저 연구의 가정과 선 이해를 밝히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현장노트에 적힌 내용이나 연구자의 생각을 수시로 메모하여 참여자의 기술내용과 비교하고 구분하는데 신중을 기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머느리 뒷바라지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머느리 뒷바라지 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van Manen[2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였고, 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문학과 기타 여러 작품 등 다양한 자료를 베트남머느리 뒷바라지한 농촌여성노인의 체험과 상호비교하면서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28개 주제와 8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참조).

3.1.1 혼기를 놓친 아들을 위해 먼 타국에서 머느리감을 구하려고 발 벗고 나섬

참여자들은 혼기를 놓치고 혼자 늙어 가는 아들을 보며 애가 났었다. 한국여성을 머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농촌에 살면서 녹록치 않은 아들에게 결혼하겠다는 여성이 없어 몇날 며칠 고심한 끝에 베트남 여성을 머느릿감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끈질기게 아들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낸 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믿을만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백방으로 알아보는 등 자신이 반 중매쟁이 역할까지 하였다.

내가 결혼하라고 권했제. 그러다 저러다 나이가 먹어 버린제, 다 없기는 없고, 외국이나 가본 몰라야. 시골 사람이고, 촌 사람들은 여위 농음은 함께 또 살라고도 않고... 또 농사짓고 산다고 현재 아이! 요즘 농사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한국 여자들은 시골서는 안 살라고 해... (작은 목소리로)여기서는 인자 즈그 연분이 없었나 보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트남으로라도 여우기로 마음 먹었제. 외국으로 여운다고 현재, 저는 막! 마다헌디... 알 아든도록 아들한테 계속 말했제. (크게 숨 한번 쉬며)고생 말~도 못하게 했제. (참여자 4)

3.1.2 생면부지 머느리를 기다리며 설렘과 염려가 교차함

참여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의 결혼소식을 전해 듣고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머느리가 낯선 환경에 불편해 하지 않도록 집안을 고치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면서 머지않아 오게 될 머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다. 드디어 먼 길 온 베트남머느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서야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났지만 아들과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말도 통하지 않은 어린 베트남머느리가 아들과 함께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이것이 먼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제. 어리고 그런게 걱정이 많이 되기는 되제. 나라가 틀린게 모든 것이 다 틀리제. 글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게 그것이 제일로 걱정이 돼야. 그때 며느리가 우리 외손녀 히고 (나이가) 비슷했어... 20살인가! 21살인가! 된디 얘기여 얘기... 처음에는 우리 아들하고 말이 안통해서 걱정도 돼왔제... (목소리를 줄이며)되고말고... 말 안통하고 애터지른 어쩔까? 그런 것이 걱정되제. (참여자 1)

3.1.3 서로 낯설고 달라 부대끼나 며느리에게 정성을 쏟음

참여자들은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할 말도 없고, 아직은 낯설기만 한 며느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어색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혹 하나 둘 크고 작은 오해가 생겨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무엇보다도 어른과 함께 한집에 살면서 늦잠 자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는 베트남며느리를 보자면 한숨이 절로 나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며느리가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 먹자 걱정스런 마음에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만들어 주었고, 모국음식을 찾는 며느리를 위해 물어 물어 베트남 음식을 구해다 먹이는 등 갖은 정성을 쏟았다.

생전 참말로 머시게도 지방도 아침에 내가 밥 하제 저는 밥 안 해. 내가 밥 안하른 그즈 신량이 안치고... 뭘 밥을 아침도 차려줄라고도 안하고... 나한테 널 아침에 뭘 국 끓일꺼냐고 물어! 내일 아침에 미역국 끓이시오. 뭇하른 된장국 끓이시오 그러제. 저는 운동 땀김서, 암것도 할 게 없잖아. 내가 다 한게... 아무리 말해도... 맘씨는 나물랄 때가 없는디... (잠시 쉬었다) 우리 때는 어디 그랬간디! 글고, 한국며느리한테는 성질 나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하잖아. 그란디 저것은 그렇게 하면 엄청 오열을 해. 베트남 말은 억양이 높은데 한국말은 억양이 낮잖아. 우리 한국말은 말끝을 내려지지. 그러니까 화나서 막 해 버리면 저것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하지. (참여자 6)

3.1.4 내가 아는 방식으로 며느리를 손수 챙기고 가르침

드디어, 며느리가 기다리던 손주를 낳자 참여자들은 집안일과 농사일로 정신없이 바쁜 중에는 며느리의 기력 회복을 위해 갖가지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여 지극정성으

로 보살폈다. 어린 며느리가 손주들보는 것이 아직은 어설피게 느껴져 기저귀 가는 법, 젖병 삶는 법, 목욕시키는 법 등 손수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다.

그때 감 따기 시작 히고 바쁘제. 그래도 꼭! 챙겨줬제. 밥 다 챙겨줬제. 아따! 힘들데. 아침에 일찍 히니 일어나서 밥 해주제 잉!, 또 오전 9시 반이나 되든 새참 주제 잉!, 점심 주제 잉!, 또 오후 새참주제 잉!, 또 잘락 힐 때 주제. 힘들드만... 자주로 해줬제. 그른 밥을 잘 먹어. 그러든 이뻐 죽겼어. 잘 먹으게. 응! 이뻐 죽겼어(작게 혼잣말처럼). 젓도 많해 갖고 강! 짜 내다 싶이 했어. 겁났어. 젓이... 미역국을 그루고 좋게 해서 잘 끼려 준게 잘 먹고 그래. 그러도 딱~ 누웠어. 애기 데리고. 그러도 참 낯 곳 한 번(얼굴 한번 변하지 않고) 앓고 진짜 따뜻하게 잘해줬네. 말 할 것도 없고, 진짜 잘해줬어. 공계 잘 먹고 건 강했어. (참여자 1)

3.1.5 나의 낙(樂)인 손주를 보면서 고달픈 삶을 버티며 며느리를 끌어안음

일부 참여자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며느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돈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사돈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심신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 인생의 낙(樂)인 손주를 바라보며 힘든 삶을 버티낼 힘을 얻었다.

그래서 셋 낳았어. 손자를 얼마나 이쁘게 낳았다고! 손주들 밥 먹는거 보든 오지제. 고생 히고 사는 것이 느그들뿐이다. 내가 그래... (중략) 새끼들이 이쁘디(웃으심) 하른! 내 힘은 들어도... 지방도 들에 갔다 오든 야그들 있은 오지고 웃고, 그 평안으로 살아. 감사하고... (참여자 4)

3.1.6 며느리 눈치를 살피고 숨죽이며 며느리 비위를 맞춰 나감

때때로 아들 부부가 별 일은 없는지 신경 써 지켜보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혹여 아들 내외 사이게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기라도 하면 아들을 먼저 불러 주의를 주면서 별 탈 없기를 바랐다. 또한 아들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혼자 참으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숨죽이며 살았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며느리가 성질내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화평하게 살제. 지가 아무리 성질내고 훌떡훌떡 뛰어도... 병어리 돼서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아 야제. 한집이서 삼서(살면서) 뭐 간섭도 안하고, 나 헐 일이나 허제, 진짜 나 헐 일이나 허제... 나 말 한소리 안 해라오. 죽은 목심으로 살아 야제. 뭘하던지... 그런게 가정이 편해야 할라본 (목소리가 떨리며)한나(하나)가 죽어야 해. 한나가... (잠시 쉬었다)소리 없이 죽어야제, 가정이 편하거든... 가정에서 함께 살라본 뭘~일이든지 속이 썩어야제, 평안 허니 살제... (참여자 4)

3.1.7 며느리가 자신의 '뭇'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챙기며, 입지를 세워줌

대부분 참여자들은 가정 내에서 베트남며느리가 손윗사람이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처신하였고, 이웃과 동네사람들 앞에서도 잘한 일은 칭찬하며 기를 살려 주었다. 또한 며느리가 하루빨리 한국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간혹 며느리가 살림을 하면서 놓치거나 하지 못한 일들을 내색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었다.

(베트남)큰 며느리가 나이가 많이 어려. 막둥이 며느리가 나이가 훨씬 더 먹었어. 띠동갑도 더 돼. 지금 마흔 살이 넘었는데... 근디 '나이가 어려도 큰형님은 큰 형님인게 깎듯이 해라' 내가 왓싸리 말했어라오. 궁게 인자는 도란도란 들이 이야기도 하고, 오븐 오냐고도 하고, 가족들끼리 헐 것 같이 해. (참여자 3)

3.1.8 내가 없더라도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 할 며느리가 있으니 내 소임 다한 것 같아 홀가분함

참여자들은 늦도록 결혼하지 못한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같이 마음이 편안하였다. 며느리가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며, 이웃과 친척이 왓도 스스로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해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어 준 며느리가 있어, 이승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한 참여자는 지금이라도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먼저 간 남편 얼굴 보기에 땀땀하다고 하였고, 어떤 참여자는 조상들 불 면목이 선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을 마치 '죽을 자격증'이라도 따놓은 것처럼 편안하다고 표현하였다.

아들 짝을 맺어서... (아들 손자)내가 얼~마나 원했다고... 근디 손지 본게 오지제. (큰소리로)아들이라! 대를 어었은게. 인제는 제사밥은 얻어먹제. 나는 인자 있어브러. 그래도 인자 여워서 손지 우리 썩서 딱 붙여켰어. 나는 내 헐일 다 했어. 인자 죽을 자격증 땀어. 나는 헐 말 있제. 나는 내 헐 일을 땀땀허니... (어깨를 펴며)진짜 조상들은 누가 돼앗더라도 나한테 뺄 소리 못한당게. 나 조상들 만나본 인제 면목은 스요! 나 헐일 다했은게... ('죽은 남편에게 큰소리로)너 못 헐 일 내가 하고 간다(말씀 뒤 웃음)'. 나 죽음은 즈그 아버지가 나한테 상 줘야해. (참여자 7)

3.2 해석학적 글쓰기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에 관해 van Manen[24]이 제시한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space), 체험된 사물(lived things), 체험된 신체(lived body) 및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인 5가지 실존체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의미를 서술하고자 한다.

참여자는 혼기 놓친 아들이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캄캄한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 볼 때마다 '하늘이나 내 속을 알아줄까!' 그 답답한 심정은 어디 한 군데 하소연 할 때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촌에 살면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는 혼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몇날 며칠 밤잠을 설쳐가며 혼자 고심한 끝에 베트남며느리를 얻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기어이 아들의 승낙을 받아 낸 후에는 하루빨리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믿음만한 중개업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자신이 반 중매쟁이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는 아들이 베트남으로 떠난 지 얼마 후 결혼이 성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치 '대타하나 심어 놓은 것' 같고, '아들을 여운 게 발 뺀고 잠이 옵디다.' 라며 반가운 마음과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머지않아 오게 될 생면부지 며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베트남며느리를 보니 막상 대화도 안 되고, 손너 또래로나 보이는 한참 나이 어린 베트남며느리와 아들이 잘 살 수 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참여자는 몸짓 손짓 온갖 시늉을 해가며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대로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뜻이 전달되어 오해가

생기는 등 속상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참여자가 베트남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 매일 서로의 이름을 체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해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아들 내외를 강하게 연결해 줄 끈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고, 입덧으로 힘들어 하는 며느리를 위해 좋다는 한국음식을 만들어주거나 며느리 입에 당기는 베트남 음식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는 등 서로 낮설고 달라 부대끼기도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뒷바라지 하였다. 학수고대하던 손주를 바라보며 한국 사람과 외형이 닮은 것을 보고서야 불안감을 떨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다. 바쁜 농사철에도 며느리 산후조리를 위해 식사 때마다 빠짐없이 미역국을 챙겨 주었고, 손주가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잉어, 소뼈 등을 고아 주기도 하는 등 비록 자신 한 몸 돌보기도 힘들고, 고단하였지만 베트남며느리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멀리 있는 친정식구들은 챙기면서 막상 가까이 있는 자신을 챙기지 않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삶의 낙(樂)인 손주를 보면서 어려움을 참고, 고달픈 삶을 견디면서 베트남며느리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 참여자는 수시로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며, 싸우거나 틀은 생기지 않았는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위를 살폈고, 조금이라도 며느리의 안색이 안 좋거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면 아들을 불러 타일렀다. 식구가 늘면서 더욱 많아진 집안 일과 농사일 때문에 뼈가 녹아나고, 온 몸에서 골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허리가 휘며,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마치 '산지옥'에 사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아들이 가정 걱정에서 손에서 일을 놓을 수가 없었다. 때로는 베트남며느리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아들 가정의 평안을 바라며 병어리처럼 입 다물고 숨죽이며 며느리 비위를 맞추고 살았다. 또한 베트남며느리가 가정에서 나이가 어릴지라도 손윗사람이면 다른 며느리들에게 형님 대접을 깎듯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기를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간이 지나 한국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진 베트남며느리가 집안일과 농사일을 할 때면 혹시라도 빠뜨린 일은 없는지 뒤에서 살피며, 며느리가 자신의 '뭇'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도와주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베트남며느리의 뒷바라지를 참고 견디다 보니 이제는 동네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며 옆에 있는 베트남며느리가 자랑스럽고 든든하며 의지가 되었다. 음식도 자신이 알려준 대로 제사나 명절음식을 알아서 잘 만드는 것을 보니 이제 자신이 없더라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잘 헤쳐

나가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무엇보다 우리집안의 '성씨'를 물려받은 귀한 손주도 있고, 죽어서도 집안 제사를 지낼 며느리가 있어 이승에서 내 할 일 끝낸 것 같아 마치 '죽을 자격증'이라도 딴 것처럼 홀가분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에 대하여 van Manen[2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며느리 뒷바라지 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혼기를 놓친 아들을 위해 먼 타국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발 벗고 나섬'이다. 참여자들은 혼기를 놓치고 혼자 사는 아들을 위해 자처하여 베트남며느리와 혼인을 성사시켰다. 당시 참여자들의 평균나이가 약 70세로,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제 및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이다. 당시 여성들은 출가의 인이 되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만 했고, 조상 섬김을 예로 여기며 숙명처럼 한평생 살아 온 세대로 결혼은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인륜지대사로 생각하였다[7]. 여성노인은 노총각 아들의 혼사를 대를 잇기 위한 인륜지대사로 여겨, 본인이 죽기 전 반드시 해내야 할 시택 가문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25]. 대부분 배우자 없이 혼자인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인 소득은 여유롭지 못한 형편으로[2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국제 결혼중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농촌여성노인에게 노후 자금이자 큰 목돈이었지만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이런 경제적 뒷바라지는 자식에게 확고한 가족지지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참여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생면부지 며느리를 기다리며 설렘과 염려가 교차함'이다. 대부분 국제결혼의 경우 현지의 여성들과 만남에서 결혼까지 해당 국가 체류기간은 베트남이 5.6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짧아[12], 속성 결혼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5]. 이는 고부사이 및 아들부부의 결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농촌여성노인은 아들 결혼에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과 나이차이 많은 베트남며느리가 잘 살 수 있을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설렘과 염려에 관해 An & Chung[5]은 이웃집 베트남며

머니리 시댁식구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생활력도 강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머너리도 그렇게 살아낼 것이라는 기대 반, 염려 반의 심정이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서로 낯설고 달라 부대끼나 머너리에게 정성을 쏟음'이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모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한국을 통해 원가족을 돕기 위해서이다[9]. 또한 참여자들이 베트남머니리와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로[16], 손짓이나 발짓, 몸짓 등 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며 살지만 도무지 머너리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답답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대화의 한계는 고부간의 오해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14]. Kang & Auh[15]에 따르면 시부모들은 머너리의 게으른 태도가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생활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Park & Noh[16]는 집안일 때문에 외국인머니리와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머너리에게 시키지 않고, 차라리 자신이 직접 집안일 대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 본질적 주제는 '내가 아는 방식대로 머너리를 손수 챙기고 가르침'이다. 머너리의 첫 임신소식은 대이음의 기쁨과 더불어 아들 부부를 강하게 연결시킬 끈이 생긴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린 머너리가 입덧으로 힘들어 하자 백방으로 머너리 입맛에 맞는 한국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을 수소문하여 먹이는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머너리를 챙겨주었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임신한 베트남머니리에게 주의해야 할 행동과 임부와 태아에게 좋은 음식을 가려 먹게 하고, 산후 조리 및 아이 양육까지 전적으로 도와줬다. 노년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나 육아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시기로 생각하지만 베트남머니리를 맞은 농촌여성노인들은 머너리의 산전 및 산후조리와 손자녀 양육까지 끝없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벅겁고 고단하였다.

다섯 번째 본질적 주제는 '나의 낙(樂)인 손주를 보면서 고달픈 삶을 버티며 머너리를 끌어안음'이다. 한국의 가족문화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배우자의 부모를 자신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27]. 이를 가족문화 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베트남머니리가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해 오는 서운한 감정이나 시댁 식구 및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이다[5]. 그러나 참여자들은 아들 가정에 불화

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내색하지 않고, 눈에 차지 않는 베트남머니리를 내 식구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외국인머니리들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여성노인들을 경제 및 심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귀한 손자녀를 돌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고와 힘들음을 감내하게 해주고,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하였다[28]. 즉 농촌여성노인에게 손자녀 양육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삶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완성이었다[17].

여섯 번째 본질적 주제는 '머너리 눈치를 살피고 숨죽이며 머너리 비위를 맞춰 나감'이다. 농촌여성노인들이 베트남머니리에게 바라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아들과 함께 화목하고 건강하게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5]. 그래서 참여자들은 살 여름 위를 견뎌서 어린 베트남머니리의 감정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행여 아들부부의 다툼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아들을 불러 훈계하였다[16].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버거움을 모두 가슴에 묻고, 머너리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외국인머니리를 둔 여성노인들이 한국인머니리를 두고 있는 여성노인보다 아들가정유지와 평안함을 위해 긴장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9]. 이와 대조적으로 불만이나 마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하는 외국인머니리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황스럽고, 머너리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여성노인들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15]. 최근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외국인머니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입장에 대해 Park & Noh[16]은 봉양을 받기보다 외국인머니리를 '모시고 사는 아들내외'로 표현하였다.

일곱 번째 본질적 주제는 '머너리가 자신의 뉘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챙기며 입지를 세워줌'이다. 참여자들은 집안의 안주인으로써 베트남머니리가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뒷바라지해 주었다. 앞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 역할을 대신해 줄 베트남머니리를 자신의 힘이 닿는데 까지 도우며 머너리 혼자 가정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은 가정살림의 주역에서 조역으로 물러났다. 또한 머너리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집안일과 손자녀의 육아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이처럼 농촌여성노인들은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의 한국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 번째 본질적 주제는 '내가 없더라도 집안의 대소

사를 감당 할 머느리가 있으니 내 소임 다한 것 같아 홀가분함'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실제로 경제적 수입을 위해 타지로 떠난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여성노인들이 많다[30].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우울은 노인의 자살 위험성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31, 32]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여성노인들의 우울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33].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 풍조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부모의 노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을 한국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떠미는 경향이 있지만[9,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들가족과 동거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제까지 아들가정의 행복을 위해 베트남머느리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임신 및 출산, 산육기 돌봄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었던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이제는 베트남머느리의 돌봄과 챙김을 받게 되어 흐뭇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가족문화와 그들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지만 베트남의 제사문화는 그 형식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기 않다[34]. 또한 대가족을 이루지만 가족의 경계가 명확하고, 주관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좁으며 기본적으로 여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지위는 비교적 동등해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10]. 이처럼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차이로 인해 갈등상황에 놓이지만, 농촌여성노인들은 아들가정의 유지를 위해 끝없이 참으며 머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록 자신은 힘들지만 손자녀 양육까지 감당하면서 베트남머느리가 한국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피며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머느리가 한국머느리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농촌여성노인의 존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베트남머느리가 자신 대신 일상생활과 가족 대소사를 스스로 잘 챙기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 줄 손자를 낳아 이제 눈을 감아도 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없어도 역할을 해 줄 베트남머느리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소임을 완수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베트남머느리 뒷바라지 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탐색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농촌여성노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건강관리 간호중재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언어와 생활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봉착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부가 함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비자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 결혼이후 상황별로 실제 활용 가능한 한국어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손자녀 양육 시 농촌여성노인들의 연령, 교육수준 등을 고려할 때,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양육관련 서적 등의 보다 표준화된 양육지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농촌여성노인들은 아들과 적격은 12년에서 27년의 나이차이가 있는 베트남머느리와는 갈등에서 아들 가정의 평안을 위해 머느리와 겪는 모든 갈등은 가슴에 묻고, 입이 있어도 입 다물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농촌여성노인들의 상황적 스트레스 및 정서변화 관리를 위한 간호대책과 생산적인 갈등해소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머느리를 뒷바라지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노출될 경우 농촌여성노인들은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발생 시킬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농촌여성노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간호중재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시어머니 관점에서 뒷바라지에 관해 진행된 연구이다. 그러나 반대로 베트남머느리의 입장에서 '뒷바라지를 받고 있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제안한다.

Table 1.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Women's ditbaraji for Vietnamese Daughter-in-law

Themes	Essential Themes
· Being very nervous just to see my aged son being single.	Putting lots of effort to get a daughter-in-law from a foreign country for the aged son
· Having decided to have Vietnamese daughter-in-law and convincing my son to marry her.	
· Playing a match maker's role for my son willingly	
· Praying hard for my aged single son to meet a nice Vietnamese girl.	Having complicated emotions of joy and concern while waiting for the daughter-in-law to come home
· Being happy to hear my son having wedding ceremony in Vietnam and waiting for my daughter-in-law to come home after having prepared household products	
· Being relaxed after meeting the Vietnamese daughter-in-law for the first time	
· Having concerns about whether a young daughter-in-law will stay in a long marriage life	Treating the Vietnamese daughter-in-law with much love despite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from cultural gap and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 Comforting Vietnamese daughter-in-law who often weeps sincerely	
· Having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because of differences in many aspects on top of language barrier	
· Being glad and graceful to hear news of my daughter-in-law pregnancy which will enhance my son's couple relationship	Teaching and taking care of the Vietnamese daughter-in-law in my own way
· Having searched for food which will subsides my daughter-in-law's morning sickness	
· Teaching and recommending her my own prenatal care knowledge	
· Giving postpartum care on behalf of her mother heartfully.	Standing up to wearisome life by receiving pleasure from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and embracing the daughter-in-law' family
· Demonstrating how to raise grandchildren to inexperienced young daughter-in-law	
· Putting my know-how to do house chores into practice for daughter-in-law to be familiar with it	
· My heart being satisfied and relived by seeing grandchildren who resembled my son	Hiding her true feelings of discomfort and uneasy at the situation just to keep the peace within the family
· Hiding my emotional upset resulting from my daughter-in-law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her family in Vietnam but not to me.	
· Accepting the pressure of providing the daughter-in-law's family financial support as a part of my fate and comforting daughter-in-law.	
· Enhancing the energy by seeing the grandchildren growing up in spite of h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ariness.	Enhancing the daughter-in-law's status in the family by helping her in secret
· Weighing up my son's conjugal affection and promoting their relationship	
· Making much efforts to be a useful person for my son' family in spite of my physical exhaustion from keeping their house alone	
· Persevering persistently and holding my opinion just to get along with my daughter-in-law	Feeling honorable and glad by having the daughter-in-law doing her job well in my absence as well as fulfilling their duties for the family and the ancestors.
· Commending her good behaviors in front of my neighbors or family to encourage her.	
· Helping daughter-in-law to do daily housework well by herself	
· Observing my daughter-in-law doing house keeping and filling her missed house chore	
· Being fulfilled by seeing the daughter-in-law getting along well with my neighbors and relatives.	
· Feeling reassured and dependable by having my son's couple living together and taking care of me.	
· Being proud of myself having grandchildren who will hold memorial rites for the ancestors after my death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8. 08. 27).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internet). Daejeon :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0/1/index.board?bmode=read&aSeq=370326

[2] H. A. Mun. (2013).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44, 757-796.

[3] S. J. Kim (2016). Vietnamese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0(4), 171-200.

[4] M. H. Kim & K. R. Shin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5] H. J. An & H. I. Chung (2014). Adaptation process of mothers-in-law of vietnamese women married to korean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 22-34. DOI : 10.11111/jkana.2014.20.1.22

[6] D. H. Kim, S. H. Lee, Y. S. Bae & Y. K. Ha. (2015).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cculturation stress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6(3), 221-229.

- DOI : 10.12799/jkachn.2015.26.3.221
- [7] H. Y. Lee. (2015). A study on the gender inequality of elderly women's household and caregiving labor.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25(3), 141-177.
- [8] J. E. Kim & H. M. Kim. (2013). Depression among elderly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143-162.
- [9] Y. E. Yim (2017). A study types of korean multi-cultural adaptation of vietnamese people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2), 893-913.
DOI : 10.22143/HSS21.8.2.47
- [10] E. J. Lee & M. Y. Jun. (2016). A study on family perception, gender-role values, elderly parent support values of vietnamese wome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34(3), 129-145.
DOI : 10.7466/JKMA.2016.34.3.129
- [11] E. H. Lee. (2011).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of korean rural mother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s-in-law and mothers-in-law.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0, 105-133.
- [12] D. H. Seol, G. S. Han, S. Y. Park & K. S. Shim. (2017). *Surve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Korea 2017*. Sejong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13] W. S. Chang (2013). A Study of the korean life-adaptation of a the foreign daughter-in-law as affected by her korean mother-in-law's communication and attitud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1), 31-49.
DOI : 10.15300/jcw.2014.51.4.71
- [14] S. Y. Park. (2016). The experience of relationship between women marriage immigrants and mothers-in-law: the strange intimacy and the paradox of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0(1), 5-30.
- [15] H. Y. Kang & S. Y. Auh. (2014). Contextual factors in conflicts in multicultural mother and daughter in-law relationships: a qualitative approach with dyadic in-depth Interview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55-369.
DOI : 10.6115/fer.2014.031
- [16] B. K. Park & P. S. Noh. (2014).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nse of pressure shown from the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of mothers-in-law with 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 250-265.
DOI : 10.5392/JKCA.2014.14.01.250
- [17] Y. J. Cho. (2012).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law and daughter in-law's (grand)child rearing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279-309.
- [18] M. Y. Park & K. W. Sung. (2015).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312-324.
DOI : 10.5932/JKPHN.2015.29.2.312
- [19] S. H. Park, J. H. Lee & E. J. Kim (2014).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focused on mother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regarding family functions and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883-904.
DOI : 10.13049/kfwa.2014.19.4.883
- [20] M. van Manen. (200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eoul : Hyunmoon Publishing Company.
- [21] J. M. Morse. & P. A. Field.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 [22] H. Suri. (2011). Purposeful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11(2), 63-75.
- [23] M. Sandelowski.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24] M. van Manen.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ing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Walnut Creek California : Left Coast Press.
- [25] M. R. Lee. (2009). The experience of spousal bereavement in older adul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0(4), 329-339.
- [26] R. Kumar & R. K. Pathak. (2017). Socio-economic problems of the elderly residing in old age homes. *Indian Journal of Gerontology*, 31(4), 497-506.
- [27] Y. J. Cho. (2015). The case study on marriage immigrant women' child birth inten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5), 631-643.
DOI : 10.5934/kjhe.2015.24.5.631
- [28] B. J. Jeon & E. Y. Choi (2016). Level and determinativ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of elderly in multi-cultural famil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1), 1-29.
- [29] S. Her & K. H. Kim (2010). The life experiences among mother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Health & Nursing*, 22(2), 51-63.
- [30] K. J. Kwon & J. Y. Bae.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rural area.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4(4), 71-88.
- [31] H. S. Kim. (2017).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07-218.
DOI : 10.15207/JKCS.2017.8.7.207
- [32] H. J. Kim. (2019). Conjunctiv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Korean Elderly : Panel Data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391-397.
DOI : 10.15207/JKCS.2019.10.7.391

- [33] Y. J. Kim.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for Older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39-349.
DOI : 10.15207/JKCS.2017.8.10.339
- [34] Y. K. Shin. (2010).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09-122.

김 윤 경 (Yun-Kyoung Kim)

[장학원]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2월 ~ 현재 : 기독교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직무스트레스, 여성노인, 다문화간호

· E-Mail : kyk0917@ccn.ac.kr

양 복 순 (Bok-Sun Yang)

[장학원]



- 1992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3년 2월 ~ 현재 : 예수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중년여성, 사별, 다문화간호, 영적간호

· E-Mail : psyang@jesus.ac.kr